

朱子の 經濟觀

- 民을 위한 義와 利의 긴장 -*

金 勝 惠

I. 머리말

II. ≪四書集注≫에 나타난 주자의 經濟觀

III. <論財> <井田類說> <勸農文>에 나타난 주자의 經濟觀

IV. 맺는말

I. 머리말

오늘날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은 유럽공동시장과 북미자유무역지구와 더불어 세계 경제의 三大 주축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의 경제 발전을 주도하게 된 동아시아의 유교적 가치관이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¹⁾ 경제 발전과 연계시켜서 유교적 윤리관을 고찰할 때, 보통 원시

* 이 논문은 1996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해외지역연구)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金日坤, “東アシアの經濟發展と儒敎文化,” ≪儒敎ルネツサンスを考える≫ 大修館書店 1991, 106 -7쪽 참조.

유교사상과 실학파에 초점을 맞추고 주자학은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다. 실학은 유교전통 속에서도 ‘실사구시’를 제창하여 실용성을 중시했고 주자학의 重義輕利적인 가치의식을 비판하여 우선적으로 백성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公利의 사상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²⁾ 義의 실현이 장기적으로는 경제 발전에 이롭다는 경영이념을 확립하고자 하는 안목에서 볼 때, 실학의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사고가 현대인에게 호소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자가 유학전통 안에서 지닌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자의 의리적 경제관을 제대로 파악해야 유교문화의 핵심과 유교가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고유한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 1997년 2월 18-27일까지 10일간 지속된 福建省 탐사는 복건성의 옛 이름을 따라 閩學이라고 불리는 朱子學의 형성 배경과 오늘의 현황을 동시에 조감하는 기회가 되었다. 다섯 사람이 각기 경제, 사회, 철학, 종교를 전공하여 학제간 연구를 지향하는 우리 연구팀은 복건성 학문 중심지인 네 대학의 유학자들 및 경제학자들과 만나 네 차례에 걸친 좌담회를 갖고, 다양한 기업들을 방문하여 경영인들과 직접 대담을 나눌 수 있었다.³⁾ 여덟 차례에 걸친 대담중에서 특히 내게 흥미로웠던 사실 한 가지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점차로 깨닫게 된 사실은 “유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애매하다는 것과, 특히 유교를 인식하는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현저한 간격이 있다는 점이었다. 廈門에서 합작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한 한국기업인은 “유교”는 한국과 일본에 남아 있는 잔

2) 금장태, <한국실학사상연구>, 집문당 1989, 83-97쪽; 김매천, “경영철학과 유학적 발상”, <孔子사상의 발견>, 민음사 1992, 304-5쪽.

3) 2시간 반 정도씩의 좌담회를 가진 대학들은 福州大學(2월 19일 오전), 福建師範大學(2월 19일 오후), 武夷山朱子學會(2월 24일 오후), 廈門大學(2월 26일 오전)이었다. 기업인들과의 대담은 복주시외에 있는 馬尾조선소(국영기업체, 2월 20일 오전) 石獅市 獅王 완구공장(가정기업, 2월 21일 오후), 같은 石獅市 玖益 고급의상공장(대만합작기업, 2월 20일 저녁)과 廈門巨石 전자공장(한국합작기업, 2월 26일 오후)이었다.

재로, 사회혁명을 거치면서 유교는 중국에서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국인들이 현재 경제적으로는 한국보다 뒤져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발전되어 있다고 했다. 어떤 점에서 더 발전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중국인들은 한국인들보다 더 자유롭다. 사무실 책상에 주인이 따로 없고,윗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결국 그에게 있어서 “유교”란 上下의 질서를 가르치는 체계인데, 오늘날의 중국인들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의식을 직장과 가정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유교”는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대답을 나눈 중국기업인들은 모두 “유교”의 영향이 자신들과 기업 경영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진술한다는 사실이다. 국영기업체인 馬尾조선소를 경영하는 관리인들은 현대적 기술과 현실적 경영체계를 도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仁義禮智信이라는 전통적 五常 개념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특히 信은 기업에서 지켜야 할 신용으로서 중시되고, 공인들의 관리에서도 가족정신으로 단결과 화목을 지향하며 中庸의 道 때문에 함부로 해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利보다 義를 중시한 유교가 기업 발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반드시 방해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대답했다. 노동자들 중 신체가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으나 월급은 똑같이 주는데, 이것은 전통적 義 사상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업적의 차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중국기업인들과의 대답에서도 유교적 영향으로 늘 언급되는 것은 신용, 인간적 배려, 조화였다.

결국 한국기업인의 입장에서 유교를 대표하는 것이 상하의 질서라면, 중국기업인들에게 있어서 유교는 상호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믿음과 조화로 인식되고 있었다. 한국기업인의 이해가 형식적이고 禮에 관련된 것이라면, 중국기업인의 인식은 내용적이고 仁과 직결되어 있다고도

하겠다. 물론 孔子로부터 시작되는 유교는 형식과 내용, 곧 禮와 仁의 양면성을 모두 지니고 있고, <文質彬彬>, 곧 형식과 내용이 조화된 상태를 이상으로 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朱子の 문장과 관료생활을 文과 質로 보아 그의 경제사상과 경제활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자의 글로는 <四書集注>에 초점을 맞추겠고, 주자의 삶으로는 <朱子語類>와 <朱子大全>에 나오는 그의 경제활동을 고찰해 보겠다.

II. <四書集注>에 나타난 주자의 경제관

주자에게 자신의 저술 중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그는 서슴없이 <四書集注>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는 유교의 핵심이 五經에 있는 것이 아니라 四書⁴⁾에 있다고 확신했고, 四書를 해석하는 신유학적 주석을 완성함으로써 유가의 완전한 이론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구약성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과 삶을 전하는 복음서 및 신약성서에 있다고 보는 시각과 같은 것이다. 주자가 34세 되었을 때(1163년), 논어와 맹자에 대한 주해서 초본을 완성하였으나 그후 20여년간 계속해서 수정을 가했다. 60세 이후에 대학과 증용에 대한 集注를 첨가하여, 1190년 <四書章句集注>를 복건성 漳州에서 출판하였다. 71세(1200년)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3일 전까지 대학의 주석을 고쳤다고 전할 정도로 四書에 대한 그의 열의는 대단한 것이었다.

주자의 이런 열성을 이어받아 복건성에서 활동을 계속한 그의 제자

4) “四書”라는 개념 자체가 신유학을 정립한 주자의 스승 정이천에서 시작하여 주자의 <사서집주>로 비로소 확정되었다. 그는 大學章句와 或問 및 中庸章句와 或問을 저술하여 논어와 맹자에 대한 주해서를 보충하게 하였다.

들 및 역대 복건주자학자들은 주자의 《四書章句集注》를 가장 중시하였다.⁵⁾ 따라서 《四書集注》는 전수되는 주자학의 교본 역할을 하였고, 仁義의 도덕을 수양하는 안내서일 뿐 아니라 時宜에 맞는 治世 방법과 유가적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포괄적 지침서로 존중되었다. 이 안에서 인간의 경제활동과 직결되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어 주자의 경제사상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四書集注》에 드러나는 주자의 경제관은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째는 의리[義]와 이익[利]의 긴장관계에 대한 인식, 둘째는 재물의 균등[均]한 분배가 사회 안정의 기초라는 확신, 셋째는 윗사람이 예의[禮]에 따라 절검(節儉)하게 생활하면 국민들도 근검을 배워 충분한 재용(財用)이 확보된다는 낙관론이다.

그러면 먼저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주자의 의리적 경제관에서 利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과연 주자는 정이천과 같이 과부는 굶어죽더라도 수절을 지켜야 한다는 고답적인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었는가?⁶⁾ 사실 義와 利의 문제는 공자 때부터 중시되던 것으로 《四書集注》는 원시유교 때부터 시작된 이 문제를 주자가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논어》 이인편 2장의 “인자한 사람은 仁 안에 편안히 거하고(安), 지혜로운 사람은 仁을 이롭게 여긴다(利)”는 말씀을 古注에서는 “仁을 아는 것을 아름답게 여겼으니 이롭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소박하게 풀이하였다.⁷⁾ 그러나 주자는 “利는 탐하는(貪) 것과 같다”고 정의한 후에 “仁을 편안하게 여기는 것은 하

5) 《福建朱子學》 高令印·陳其芳, 福建人民出版社, 福州, 1986, 6쪽. 《四書集注》에 대한 후학들의 저술이 무려 150여 종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6) Bettine Birge, “Chu Hsi and Women’s Education,” *Neo Confucian Education*, ed. by Wn. T. de Bary, Univ. of California Press, 1989, pp.339-340. 주자는 이것이 원칙이나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없음을 인정했다(주자어류 96: 11a).

7) ‘王曰, 知仁爲義, 故利而行之’ 후에 유보남 역시 安仁과 利仁을 편안하게 仁을 행하는 것과 이롭다는 것을 알고 행하는 지식과 합쳐서 행하는 용기등으로 해석하여 聖人は 이들을 관고루 사용하여 성공을 이룬다고 풀었다(《論語正義》 75쪽).

나이고, 仁을 이롭게 여기는 것은 또 다른 것이다... 이들이 탁월한 재능을 가졌고 道를 보고 미혹하지 않는 점에서는 가하다고 할 수 있더라도 아직 이롭게 여기는 마음에서 자유롭게 되지는 못했다⁸⁾고 풀이하였다. 여기서 주자는 이롭게 여기는 마음 자체를 품고 있다는 것이, 비록 그 대상이 仁이라 할지라도, 仁을 성취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주자는 ‘利心’이란 마음안에 내재해 있는 天理를 가릴 수 있는 人欲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맹자》 양혜왕편 상 1장에서 양혜왕을 처음 알현한 맹자가 왕에게 아뢰는 “임금께서는 왜 하필이면 利를 말하십니까? 모두가 내 나라, 내 집안, 내 몸을 이롭게 하려고 하면... 구차하게 義를 뒤로 하고 利를 앞세우게 될 것입니다”라는 유명한 말에 대해 주자는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았다.

仁이라는 것은 마음의 덕이고 사랑의 원리(理)이며, 義란 마음의 제재요 일이 의롭게 처리되는 것이다... 仁義는 인간 마음에 고유하게 박혀 있는 것으로 天理의 공변(公)됨이다. ‘利心’은 사물에 접해서 내가 선택한 모습에서 생겨난 것이니, 人欲의 사사로움이다. 天理를 따르면 利를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롭지 않음이 없다... 맹자가 仁義를 말하고 利를 말하지 않은 것은 뿌리를 뽑고 근원을 막아서 그 폐단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니, 이것은 聖賢의 마음이다.⁹⁾

여기서도 ‘利心’, 곧 이익을 탐내는 마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주자나 정자가 인간 사회를 부패하게 하는 근원으로 본 것은 利 자체보다도 ‘利心’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자학에서 ‘利心’이란 정

8) ‘安仁則一, 利仁則二... 諸子雖有卓越之才, 謂之見道不惑則可, 然未免於利之也.’

9) 《孟子集注》 권1, 1b-2a. ‘仁者, 心之德, 爲之理. 義者, 心之制, 事之宜也... 仁義根於人心之固有, 天理之公也. 利心, 生於物我之相形, 人欲之私也. 循天理, 則不求利而自無不利... 孟子仁義而不言利, 所以拔本塞源而救其弊. 此, 聖賢之心也.’

당한 이윤추구가 아니라 이치에 벗어나게 남을 착취하면서 얻고자 하는 탐욕의 마음이다. 인간답게 살아가야 할 도리, 곧 天理와 상반되는 사사로운 욕심, 곧 私欲의 발동이기에 자신은 물론 사회 전체에 폐해가 된다. 오늘날 우리가 한보사태에서 목격하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권모술수, 곧 합리적 경제 성장을 파괴하는 암세포를 주자는 ‘利心’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다.

문제는 재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富를 획득하고 획득한 부를 어떻게 쓰느냐에 있다. <大學> 傳 10장을 주석하면서 주자는 “仁者는 재부(財)를 베풀어서 백성(民)을 얻는데, 不仁者는 몸을 망치면서 재물을 증식한다(殖貨)”고 하였다. 재산이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것 자체를 죄악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벌고 제대로 쓰면 어진 인간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주자는 재부를 획득하는 과정에서나 소비하는 과정 모두에서 근본되는 것에 마음을 써야(務本)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주자에게 있어서 근본이란 仁義이고, 특히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義 개념이다. 그래서 <맹자집주> 告子下 4장에서 주자는 “그 마음에 義나 利의 다름이 있으니, 그 결과는 興亡의 차이가 있다”¹⁰⁾고 했다. 여기서 義心을 가지면 흥하고 利心을 지니면 망한다는 주자의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의로운 마음이란 변하는 개개의 상황 속에서 (주자의 말을 빌리면 卽物하여) 天理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라면, 사사로운 마음은 옳음에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만을 따르는 것이므로 부패를 초래한다.

그런데 주자는 사회적 부패를 法弊와 時弊로 나누곤 했다. 법폐란 법제도가 잘못된 것으로 주자는 그것을 수정하는 일은 오히려 쉽다고 보았다. 시폐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인간이 모두 利心을 가지고 행동하면 사회를 고쳐볼 도리가 없음을 한탄했다.¹¹⁾ 우리가 사회

10) ‘其心有義利之殊, 而其效有興亡之異.’

전체를 참으로 정확시키려면 시폐를 고쳐야 하는데, 그것은 利心, 곧 사사로운 욕심을 탐하는 마음을 극복하는 일이다. 그래서 주자는 학생들에게 半日 공부하고 半日 靜坐하라고 충고했던 것이다. ‘存天理去私欲’을 실천하던 유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靜坐하여 未發의 中, 곧 마음속에 내재한 天理의 밝은 상태를 보존하고 키웠던 것이다.¹²⁾

이와 같이 天理를 存養하여 사사로운 욕심에 흔들리지 않게 될 때, 비로소 많은 백성들을 이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맹자> 이루편下 26장을 풀이하면서, 주자는 정화된 이로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故란 이미 그와 같은 자취이니 천하의 이치와 같다. 利란 따르는(順) 것이니, 그 자연스런 위세를 말한다.”¹³⁾ 道를 따르기 때문에 오는 利란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스럽게 이로움을 베풀 때 그 이로움은 두루 퍼져서 흉년에도 살인할 수 없고 난세에도 혼란을 일으킬 수 없다.¹⁴⁾ 곧 재산 축적이 충분했을 때 씹씹이에도 여유가 있게 됨을 주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이런 이로움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하고 여윌롭게 하는 일은 利心を 버린 君子다운 인간만이 할 수 있다. 仁心은 결국 利와 義를 알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로 조화시키는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지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국가는 利로써 利를 삼지 말고, 義로써 利를 삼아야 한다”(大學傳 10장)는 주자의 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君子는 자신의 재산을 없앨지언정 백성의 힘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주자에게 있어서 義라는 개념은 한 개인의 고립된 선택이나 결정이 아

11) <朱子語類> 7권, 2688쪽.

12) 丁茶山이 <牧民心書>에서 지방관들에게 매일 아침 정좌하여 하루 해야 할 일을 정리한 후에 업무를 시작하라고 한 것도 같은 취지에서이다.

13) ‘故者, 其已然之迹, 若所謂天下之故者也. 利, 猶順也, 語其自然之勢也’(4, 21a).

14) ‘周於利者, 凶年不能殺, 周於德者, 邪世不能亂’에 대한 해석 ‘周, 足也. 凶年不能殺, 周於德者, 邪世不能亂’(〈맹자> 盡心篇下 10).

나라 항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남과 더불어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다. 결국 義는 利를 받쳐주고 정화하며 인도하기 때문에, 利를 보면 義를 생각하라고 공자로부터 모든 유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小利에 집착하다 보면 큰 일을 이루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논어》 자로 17). 義와 利의 긴장과 종국적 조화는 재물을 고르게(均) 분배해야 한다는 사회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유가 및 주자의 경제관은 均이라는 목표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논어》 계씨편 1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자와 그의 제자 염유와의 유명한 대담인 “대개 고르면 빈곤함이 없다”(蓋均無貧)는 공자의 말씀에 대해 주자는 다음과 같은 주석을 덧붙였다.

“고르다는 것은 각기 자신의 몫(分)을 얻는 것을 말한다. 편안하다(安)는 것은 위와 아래가 서로 편한 상태를 말한다... 노나라 제후가 백성을 직접 다스리지 못하고 계씨가 전권을 쥐고 있으니 고르지 못한 것이다. 임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하니 서로 염오와 갈등을 일으켜서 편하지 않다. 고르면 걱정하지 않고 빈곤 속에서도 조화가 이루어진다. 조화(和)가 이루어지면 빈곤을 근심하지 않고 편안할 수 있다.”¹⁵⁾

여기서 주자는 均과 安과 和의 개념을 연계시킨다. 均을 사회속에서 각자가 지닌 分, 곧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正名 사상의 넓은 범주 안에서 재분배를 파악한다. 한 가정이나 사회의 불안정과 부조화는 빈곤에 있기 보다는 고르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均은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 따른 균등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수입이나 월급을 받아야 한다는 共產的 사고는 아니다. 그렇다면 균등한 분배를 어떤 지침에 따라 이룰 수 있는가?

15) ‘均, 謂各得其分. 安, 謂上下相安. 而 魯公無民, 則不均矣. 君弱臣強, 互生嫌隙, 則不安矣. 均則不患, 於貧而和, 和則不患貧而安.’

주자는 <맹자> 양혜왕편上 7장에 나오는 恒産사상에서 복지 사회의 기본 틀을 발견했다.

“일정한 재산이란 몇몇이 살 수 있는 생업이요, 일정한 마음(항심)이란 사람이 몇몇이 가질 수 있는 선심이다... 백성으로 하여금 일정한 생업을 갖게 하는 것은 인정을 베푸는 근본이 된다... 남의 어려움을 차마 보지 못해하는 마음을 확장할 뿐 아니라 백성의 어려움을 차마 보지 못해하는 정치를 행하는 것일 뿐이다.”¹⁶⁾

위정자에게 위정자 노릇을 하기 위한 권한과 재력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사회 각 계층의 사람에게도 각자에 해당하는 권리와 재산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가족을 편안하게 살게 할 수 있는 기본 재산이나 수입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전체적 분배를 고르게 하는 것이 정치가의 책임이다. 그러기 때문에 유가는 권력을 지닌 윗사람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욕심을 적게 갖는 것(寡欲)임을 강조한다. 정치가들이 자신의 정치권력을 악용하여 부를 축적하게 되면 백성들에게 돌아갈 몫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스스로 절제한다는 것을 실제로 행해지기 어렵기 때문에 유가전통에서는 1/10의 세금을 원칙으로 정했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同樂의 이상을 제시한다.

<논어> 안연편 9장을 풀이하여 주자는 “백성이 부유하면 임금 홀로 가난해질 수 없고, 백성이 가난한데 임금 홀로 부유하게 될 수 없다... 토지를 고르게 하고 봉급을 알맞게 하여 1/10을 바치게 하는 것이 천하의 바른(中正) 세금법이다”¹⁷⁾라고 했다. ‘中正’이라는 개념은 時中사상에서 나온 것으로 구체적 상황 속에서 이치에 맞는 적중한 결

16) ‘恒産，可常生之業也。恒心，人所常有之善心也... 使民有常産者，發政施仁之本也... 不過推其不忍之心，以行不忍之政而已.’

17) ‘民富則君不至獨貧，民貧，則君不能獨富... 而後井地均，穀祿平... 然什一天下之中正.’

정을 내리는 도덕적이면서도 성숙한 행위를 지칭한다. 그러니까 세금은 미리 정해진 일정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 해에 획득한 자산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고, 1/10을 원칙으로 하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유가에서는 1/10의 세금을 徹法이라고 불렀고, 주자는 “徹이란 통하는 것, 고른 것이다”¹⁸⁾라고 정의하여 1/10 貢法을 常數라고도 지칭했다.

공자의 제자인 原思가 봉급이 너무 많다고 사양했을 때 공자는 마을 사람과 나누면 된다고 하면서 그의 직책에 해당하는 녹봉을 주었다는 《논어》 옹야편 4장에 대해 주자는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았다. “일정한 녹봉은 사양해서 안된다는 말이다. 남은 게 있으면 스스로 회사하여 그것으로 널리 가난한 자에게 베풀면 된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聖인이 재산쓰는 방법을 볼 수 있다.”¹⁹⁾ 인격자의 경제활동은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획득하고 남은 것은 쌓아놓기보다 필요한 이들에게 베푸는 것이다. 축적된 재부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쓰일 때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자는 均이라는 것을 “공평하기 다스리는 것”(平治)이라고 했다. 공평하게 다스리면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이미 정해진 것을 어느 때나 갖다 맞추는 것이 아니다. 때에 따라서 平常의 도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변하는 일상사 속에서 中正의 도리를 분별해 내고 행하려는 것이다. 골고루 나누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는 유가는 자연히 생산보다는 분배에 더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재산증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이 획득된 재산의 분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수적인 것 같지만, 여기서 우리는 유가의 경제정책이 근본적으로 방임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백성들이 스스로 부유해지도록 조건을 조성해 주고 경제활동에 있어서만은 백성에게 내맡겨

18) ‘徹, 通也, 均也’(孟子 3A3 井地不鈎장마).

19) ‘言, 常祿不當辭. 有餘, 自可推之以周貧之... 可見聖人之用財矣.’

두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²⁰⁾ 주자 역시 경제적 방임주의를 최상으로 간주했으나 국민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禮로써 재물의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경제활동과 禮의 문제가 대두된다.

《四書集注》에 나타난 주자의 경제관은 절약과 근검으로 소비를 줄이자는 禮에 따른 사회의식을 드러낸다. 《논어》에서 禮는 인간이 완성해야 할 仁의 사회적 표현이었다. 공자사상에서 예는 《左傳》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종합적이고 중심적인 위치를 보다 내면적이고 보편성을 지닌 仁에게 양보했다. 《논어》에서 예는 인을 실천하는 구체적 덕목으로 중시되고 있다. 단 공자의 사상에서 예는 대인관계 전반에 적용되고 있을 뿐 경제활동의 지침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다.²¹⁾

공자의 仁 개념을 정치적 仁政으로 확대해석한 맹자는 “쓰기를 禮로써 하면 재물은 이루 다 쓸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禮를 경제활동의 규범으로 제시한 것이다. 예의 효용에 대해 지극히 낙관적인 맹자의 주장에 대해 주자는 “백성들에게 절검을 가르치면 재물이 쓰기에 족할 것이다”²²⁾라고 합리적인 설명을 달았다. 임금이 仁政을 베풀면 욕심을 적게 해야 하는 것처럼, 백성들 역시 절약하고 검소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주자는 禮義는 부유하고 풍족한 데서 생겨나니, 백성들이 몇몇이 살 수 있는 재산이 없으면 몇몇한 마음도 없어진다고 보았다.²³⁾ 부와 예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명확히 한 것이다. 恒産이 있어야 예가 실천될 수 있고, 예를 따라 살아야

20) 유인회, “공자의 경제사상,” 《공자사상의 발견》, 61-62쪽 참조.

21) 유인회는 공자의 경제사상을 취급하면서 左傳 成公2년(기원전 589)에 仲尼聞之曰로 소개되는 ‘禮以行義, 義以生利, 利以平民, 政之大節也’라고 하는 부분을 인용하여 공자 역시 이익의 적절한 배분과 조화를 위해 의를 구체화 한 예를 말했다고 했다. 그러나 左傳에 대한 문헌비판적 연구에 의하면 좌전 내의 仲尼曰은 기원전 1세기 경에 한대 유가들에 의해 삽입된 것으로 판정되고 있다(Ronald Egan, “Selections from Tso Chuan,” Harvard Diss.(1976) pp.346-355 참조).

22) ‘用之以禮, 財不可勝用也’; ‘教民節儉, 則財用足矣’(〈맹자〉 진심편上 23장).

23) ‘尹氏曰, 言禮義生於富足, 民無常産, 則無常心矣.’(같은 책).

부유가 축적되어 사회 전체가 부유를 골고루 나눌 수 있다. 절약하는 생활 태도와 감소한 일상 양식은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 모두 실천해야 할 도덕 실천이다. 君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선비들에게 주자가 제시한, 천리를 보존하고 사욕을 버리라(存天理去私欲)는 거창한 표어는 '節儉'이라는 소박한 생활양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권고되고 있다.

사회 구성원 전체가 근검하고 정직할 때 비로소 仁義가 실현되고 경제도 안정된다는 것을 주자는 <大學> 傳 10장에서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윗사람이 仁을 좋아하여 그 아랫사람을 아끼면, 아랫사람들도 義를 좋아하여 그 윗사람에게 충성하게 된다. 그래서 일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고 창고의 재물은 합부로 나갈 걱정이 없다.²⁴⁾

사실 주자는 <대학> 傳 10장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백성과 더불어 성공과 실패를 함께 하고 그 이익을 독차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두에게 이롭게 되고 각자가 얻을 것을 얻으니 태평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²⁵⁾ 仁과 義 안에서 공동체적 利를 추구하면, 축적된 재물이 선할 뿐 아니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말이다. 단, 무한정한 인간의 욕심은 예에 따라 절도를 갖게 해야 하고, 적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수양이 필요하다.

<사서집주>를 통해서 본 주자의 경제관은 인간 마음이 추구하는 이익을 義에 따라 조절할 수 있으면 이익 추구하고 그에 따른 재부의 축적도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는 주장이다. 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는 재부가 확보되어야, 비로소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예

24) '上好仁以愛其下, 則下好義以忠其上, 所以事必有終, 而府庫之財, 無悖出之患也'(사서집주 11a).

25) '此章之義, 務在與民同好惡而不專其利, 皆推廣絜矩之意也. 能如是, 則親賢樂利, 各得其所, 而天下平矣'(같은 책 11b).

로써 인간 관계를 조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禮란 본래 너무 긴 것은 자르고 너무 짧은 것은 길게 하며, 적거나 넘치는 것을 조절하는 것이다. 禮敎를 통해 인간은 어려서부터 절약하고 검소한 삶을 익힌다. 주자가 친구나 제자들을 격려해서 古禮를 간소화하여 편찬케 한 <小學>이나 <朱子家禮>는 교육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다.

III. <論財> <井田類說> <勸農文>에 나타난 주자의 경제관

<사서집주>가 주자 경제관의 이론적이고 원칙적인 측면을 보여준다면, <朱子大全>이나 <朱子語類>에 포함되어 있는 몇 개 안되는 주자의 경제적 논문들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예들을 대할 수 있다. 주자의 글과 대답을 수집한 방대한 이 두 저서 안에는 사실 경제활동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그리 많지 않다. 주자의 관심이 주로 心性論 방면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궁리나 수양에 가르침의 대부분이 할당되고 있다. 治人 면으로 사회적 문제를 취급할 때에도 정치적 관심이 대종을 이루고, 경제적 주제는 그 안에 부차적으로 첨가되어 있는데, 주자는 정치를 제대로 하면 경제 발전은 자연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 경제적 논술의 양이 적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자는 유가적 경제 실현에 대해 비교적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짧은 관직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현해 보고자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다.

<朱子語類> 안에 있는 <論財>라는 짧은 논문을 우선 살펴보겠다. <論財>에서 주자는 국가의 공식적 경비(國家經常之費)와 종실의 사사로운 비용(人主之私錢)을 구분한다. 그리고 종실의 비용이 매년 확대되어 국민을 위해 소모해야 될 국가의 자산이 줄어드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종실의 봉급은 매년 많아지니, 이와 같이 4-50년이 지나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것인가?... 더욱이 만일 (황족) 한 사람이 열 명의 아들을 가지면, 10배의 국가 보조비를 받아 사용하게 된다.²⁶⁾

주자는 漢代의 종실에서는 첫 아들만이 아버지의 작위를 계승하고 그외의 아들들은 몇 세대가 지나면 서인들과 별 차이없이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들어, 종실의 경비를 국가비용으로 모두 충당하는 것에 반대한다. 《朱子語類》 안연편 袁公問於有若장에서도 “종실이 매일 커지고 있으니, 가히 두려운 것이다”²⁷⁾라고 해서 종실의 확대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였다.

국가경비가 필요 이상으로 커지면서 소금 판매등 이윤이 높은 사업을 국가기업으로 독점하여 국민의 이익을 국가가 가로채게 된 문제를 주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민(閩)강 아래 四州에서는 소금 판매에 대한 세금을 나누어서 내게 하였는데, 뿔쪽 四州에서는 국가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절강성 동부지역, 紹興지역, 해변지역 四州에서도 민강 아래 四州와 같은 법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소금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 법은 심히 폐단이 크다.²⁸⁾

소금 판매는 茶, 술 판매와 더불어 높은 이윤을 내기 때문에 이미 前

26) ‘宗室俸給，一年多一年；驍驍四五十年後，何以當之?... 且如一人有十子，使用十分孤貴請受’(주자어류 7권, 권 111, 2720쪽).

27) ‘宗室則日盛，可畏’(주자어류 3권, 권 43, 논어 25, 1086쪽).

28) ‘閩下四州監法分稅，上四州官賣。浙東紹興四州邊海亦合如閩下四州法，而官賣之，故其法甚弊’(주자어류 7권, <論財> 2723쪽). 東宋 때에는 국토가 반으로 감소되었으나 재정 수입은 북송 때의 수입의 최고 액보다 많았으므로 세금의 부과가 과중했다(<中國通史> 하권 전략성 저, 신승하 역, 우중사, 682쪽).

漢시기 염철논쟁(기원전 81년)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의 전매 품목이었다. 전매사업을 통해 국가가 부유를 축적해야 한다는 法家들의 주장과 국가는 백성과 이익을 다투어서는 안되고 백성들이 스스로 부유해 지도록 좋은 조건만을 형성해 주어야 한다는 유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주자가 살던 시대에도 이 두 가지 주장과 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주자는 분명하게 정부에서 직접 소금을 판매하여 백성의 이익을 가로채는 것을 부패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했다.²⁹⁾

경제활동 과정에서 정부가 백성과 이익을 다투면 안될 뿐 아니라 주자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게 하는 세금징수에 있어서도 국가가 백성을 약탈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朱子大全》 권68 雜著에 있는 <井田類說>에서는 옛부터 실시되던 1/10세가 “天下의 中正”, 곧 알맞는 세금법이라고 주장했다.³⁰⁾ 주자는 농부 8가족에게 100무의 땅을 나누어 주고 公田을 공동으로 경작케 하는 井田法을 이상으로 보았다. 士와 工人과 商人 가족에게는 다섯 가족에게 농부 1인에 해당하는 땅을 주고 전체 세금을 公田의 1/10세를 받는 것과 균등한 양의 세금을 받는 것이 옳다고 했다.³¹⁾ 결국 세금의 적정량은 수입의 1/10이라는 것이 주자의 소신이었다.

그런데 주자가 복건성 崇安 五夫里에 살던 1167년 가을에 큰 홍수가 발생하여 기아가 극심했었다. 1168년에 주자는 오부리에 社倉을 설립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보릿고개에 지방관청에서 소장하고 있는 곡식을 빈자들에게 빌려주고 가을에 20%의 이자를 더

29) 남송시대의 소금 판매는 국가 전매제로 백성이 사사로이 소금을 만들지 못하도록 엄금하였다(《중국통사》 하권, 681쪽)고 하는데, 위에 인용한 주자의 말쑥 중 <分稅>와 <官賣>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복건성 학자들과의 좌담회에서도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모른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30) ‘漢文帝十三年六月，除田租 荀氏論曰，古者什一而稅以爲天下之中正也’(景文社, 626쪽).

31) ‘如此比士工商家受田，五口乃當農夫一人... 稅謂公田什一，及工商衡虞之入也’(같은 책 627쪽.)

하여 되돌려 받는 것이다. 수확이 평년작보다 못할 때에는 이자를 반으로 삭감하고, 흉년에는 이자를 전부 면제했다.³²⁾ 물론 사창제도는 자연재앙이 일어날 때 국민을 구제한다는 복지적 측면이 강해서 일반 세금과는 차이가 있으나, 1/10세법을 “천하의 中正”으로 강조하던 주자가 사창 관리에서는 왜 20%의 이자를 받았는지는 명확치 않다. 물론 매년 추곡의 형편에 따라 10%를 받기도 하고 완전 감면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평균치를 잡기 위한 것이었는지 모르겠다.³³⁾

사실 주자가 관직에 종사한 시간은 많지 않아서 전부 합해도 7년 정도이다. 우선 그가 진사에 급제한 후에 첫번 관직으로 받은 것은 복견성 泉州 同安縣의 主簿(1153-6) 자리였다. ‘주부’란 공문서를 관리하고 조세를 담당하며 교육을 증진하는 일을 관장하는 관직이었다. 《朱子語類》 <주부> 조항과 《泉州府志》등을 보면 22살로 임직한 주자가 부세의 출입문서를 일일이 재결하여 일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부패가 낄 수 없게 사무처리를 철저히 했음을 알 수 있다.³⁴⁾ 후에 그가 60세 되었을 때 孝宗 황제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국가의 財用은 모두 국민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아끼려면 반드시 먼저 節用에 힘써야 합니다”³⁵⁾라고 한 말을 실천한 것이라고 하겠다.

49세 때(1178년) 주자는 가뭄이 심한 江西 南康軍을 구휼하라는 효종의 명령을 받아들였다. 황제에게 민정을 보고하면서 세금을 면제해 줄

32) 《朱熹與閩學淵源》 武夷山朱熹研究中心編, 上海三聯書店 1990, 218쪽; 《朱文公文集》 권13(延和奏劄四)에 대한 논의는 高令印의 《朱熹事迹考》(상해인민출판사, 1987) 95-97쪽 참조. 사창제도는 북송 인종(1041년) 때 이미 창설되었으나 정착을 하지 못했는데, 주자의 五夫社倉이 성공하여 승안현에 사창 17개소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33) 당대에도 魏元履는 주자의 사창에서 받는 이자가 너무 높다고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끝에 가서 주자가 설립한 사창만 지속된 것을 보면 주자의 관리 방법이 정확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徐剛, “試論朱熹經濟管理思想.” 《朱子研究》 (1996. 2, 15쪽).

34) 《주자어류》 권106 제1조 <主簿>와 《주문공문집》 권77 《一經堂記》등. 이에 대한 논의는 고령인의 《주희사적고》 51-53쪽 참조.

35) ‘國家財用, 皆出于民... 是以將愛人者, 必先節用.’ 주자가 1189년 황제에게 올린 十大主張에 관해서는 《福建朱子學》 40-42쪽 참조.

것과 군량미를 풀어서 백성들을 구제할 것을 요청했다. 재앙을 당한 위기상태에서 백성을 구휼한 주자의 치적이 인정되어 51세(1181년) 되던 해 주자는 다시 浙東提舉常平茶鹽公事로 임명되어 절동지역의 재해를 구휼하게 되었다. 백성의 안녕을 위한 그의 경제정책, 아마도 茶와 소금 전매제의 부패를 개혁하려는 그의 혁신적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는 관직을 사임하고 武夷山에 은거하여 학술행동에 전념했다.³⁶⁾

비록 주자가 그의 유가적 경제관을 관직을 통해 실현하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치더라도, 계속 저술활동을 통해 국민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경비를 줄이고 착취는 물론 국가 통제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작은 정부'의 경제적 효용성을 역설했다.

주자는 국가가 국민에게서 받아들이는 세금을 10% 정도로 가볍게 하고 형벌 집행에 관대하면, 백성들 스스로가 능력을 발휘하여 생산이 증진되고 생활이 풍족해져서 법망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³⁷⁾ 이익 추구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맡기고 위정자가 私心없이 모든 공무를 공경스럽게 처리하면 부패가 제거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정자나 백성들이나 모두 사심을 없애고 이치에 맞게 살려면 예의를 따라야 하는데,³⁸⁾ 반대로 예의는 기본적 의식주가 충족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주자의 현실적 인식이었다.

《朱子大全》에 실린 세 편의 勸農文에서 주자가 경제 발전과 도덕적 문화 생활, 곧 예의의 실현을 직결시키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36) 武夷山朱熹研究中心의 한 학자는 주자가 절강성에서 재난에 허덕이는 백성을 구휼하고자 11개 면에서 면세조치를 하면서 탐관오리와 투쟁했다고 말했다. 漳州에서는 납세제도를 개혁하려고 하다가 부유층의 저항으로 실패하고 1년만에 사임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주자가 소금의 官賣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상소문은 읽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37) '且如今寬刑薄賦 民亦自能興起而不陷於刑'(주자어류 권43, 논어 25 자로편 善人爲邦章, 3권 1104쪽).

38) '若民處恭, 執事敬, 與人忠時, 私心更無著處. 曰, 若無私心, 當體便是道理'(같은 책 1107쪽; 樊遲問仁章).

입을 것과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되면 禮義가 성해져서 행해질 것이며, 감응하여 화평을 부를 것이니, 더불어 어진 수명을 누리는 정도에 오르게 된다.³⁹⁾

생각컨대 국민들 생활의 근본은 먹는 데 있고, 먹을 것을 충분히 하는 것은 농사에 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다.⁴⁰⁾

대저 우리 국민들이 입고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해주고 영광과 욕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곡물창고가 차고 예절을 알게 됨으로써 국민 생활이 부유하게 되면, 어진 수명을 누리는 경계에 가까이 이르렀다 하겠다.⁴¹⁾

위의 인용문들은 모두 국민의 만족스런 의식주 생활을 주자가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를 말해준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될 때에야 비로소 예절을 익힐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인간 삶의 영광과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물질적 여유를 기초로 해서 문화적이고도 도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의 경지를 주자는 “仁壽之域”이라고 불렀다. 어진 생활로 가정과 이웃을 감싸면서 하늘에서 받은 수명을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주자가 그린 이상적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학자들에게는 “聖人の 경지”를 바라보라고 촉구했는데, 일반 백성 모두의 삶에서는 좀더 일반화되고 평범한 “仁壽의 경지”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聖人됨의 핵심이 仁을 이루는 데 있고, 仁壽를 누리는 삶 역시 仁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전

39) ‘衣食給足, 禮義興行, 感召和平, 共躋仁壽’(주자대전 권99, 公移10). 한 권농문의 끝부분으로 농사에 필요한 토지 준비, 종자, 저수지, 양잠등에 대해 설명한 후의 결론이다.

40) ‘竊推民生之本於食, 足食之本在農, 此 自然之理也’(같은 책 106). 또다른 권농문의 시작이다.

41) ‘蓋欲吾民衣食足, 而知榮辱. 倉廩實而知禮節, 以趨於富, 庶仁壽之域’(같은 책 권100, 12a).

자가 더 많은 학문적 연구와 수양적 도야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인자한 삶을 학자나 농민이나 정치가나 서민에게 똑같이 촉구했다는 점에서 볼 때 주자에게 있어서 계층간의 차이는 직업의 다름일 뿐이지 인간 자체의 차별은 아니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바로 이런 평등한 인식 때문에 주자 자신도 40여년 간을 관직없이 스스로 무이산의 아름다운 경치속에 파묻혀서 저술과 강의만으로 즐겁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대인이 중시하는 이윤 추구, 부유의 축적은 유가적 관점에서 보면 일반 서민들에게 맡겨진 몫이다. 학자들은 도를 배우고 닦아서 문화유산의 정수를 이해하여 실천하고 전수하는 일을 담당한다. 정치가는 백성들이 仁壽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를 안정시키고 사람을 현명하게 등용하여 경제적 조건을 균등하게 해주는 책임을 갖는다. 주자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공손하고 검소해야 하며 선을 좋아해서 국민 전체를 잘 살게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의 모든 권한은 백성을 위해 주어졌 것이고, 경제 원리는 국민을 살찌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기 때문이다.⁴²⁾

IV. 맺는말

우리 연구팀이 1997년 2월 18-27까지 열흘간 복건성에 머무는 동안 등소평의 서거 소식을 전해 들었고 우리 기대와는 달리 담담하게 이 소식을 접하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보았다. 우리가 물어볼 때마다 한결 같이 등소평이 시작한 개방정책은 20년간 뿌리를 내려서 자신들의 삶

42) '治道別無說, 若使人主恭儉好善... 正君心是大本, 其餘萬事各有一根本, 如理財以養民爲本, 治兵以擇將爲本'(주자어류 권108, <論治道> 朱子五, 2678쪽).

을 더 나아지게 했고 이제 뒤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대답들이었다. 2월 19일 <福州晚報>에는 등소평의 경제이론을 연구해야 한다는 기사가 실렸고, 우리와 좌담회를 했던 廈門大學의 경제학 교수는 중국이 20년 내에 10%의 경제성장을 해서 타국가의 3배 성장을 올린 것은 첫째로는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바꾸면서 서서히 안정되고 정확한 목표를 제시한 등소평의 개방정책에 기인한다고 못박았다.⁴³⁾ 유교의 영향은 보조적인 것으로 유교적 정신문화를 통해 중국인들은 중앙집권적인 강력한 지도력을 신뢰하고 따르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하문대학의 유학자들은 등소평 사상과 유교전통과의 관계를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등소평은 너무 높았던 공산주의의 ‘大同’이라는 이상을 낮추어서 실제적으로 실현가능한 ‘小康’ 사회를 만들려고 했다. 이러한 실현가능한 목표 설정에 있어서도 공자의 시대를 小康의 시대로 본 유가전통이 작용했고, 농업과 기업을 각기 실사구시의 방법으로 발전시킨 점에서도 유교 영향이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모택동 사상과 유교와의 관계가 밝혀졌듯이 등소평의 경제이론에 미친 유교의 영향에 대해 앞으로 중국학자들의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국가정책으로 1996년부터 ‘정신문명 건설’을 제창하고 ‘忠孝仁愛, 治國安方’을 모토로 설정했기 때문에 유교에 대한 교육이 활발해지리라는 武夷山朱子學會 임원들의 말은 사실일 것 같다. 복주대학에서는 유교에 대한 개별 강의를 다음 학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나 현대적 해석을 결합 예정이라고 한다. 복건성에서는 유일하게 하문대학에서 3년전부터 경제와 유교의 관계를 다루는 강의가 개설되었다. 선택과목으로 7-80여명에서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인다고 하였다. 중국 밖에서의 토론이 개방 속도

43) 중국이 옛소련 및 동구와 다른 점은 경제활동의 자유화, 농촌의 값싼 노동력, 60% 정도의 화교자본유입, 유가정신문화, 重商전통이라고 다섯 가지를 나열했다.

가 빠른 항구도시부터 시작하여 안에서도 수용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중국 복건성의 학자들과 만나든, 기업인들과 만나든 공통된 점은 유교전통을 전면적으로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점은 취해서 현대적 시각에서 조명하여 재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이 제시한 유교에서 버려야 할 점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1) 商人의 경시, 곧 利를 소홀히 하는 점
- (2) 남녀불평등 - 경제 건설에 도움이 안된다.
- (3) 복고사상 - 경제 발전에 방해가 된다. 단 복고주의는 周初의 질서를 원하는 것이지 무조건적 복고는 아니라는 해석도 있었다.
- (4) 禮의 세목은 오래된 것이라 현대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商人과 利를 소홀히 한다는 유교에 대한 비판은 개방 이후 실제 상황에서 자본주의적 경험을 갖고 있는 기업인들에게는 이미 문제가 되지 않았다. 상인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어서 실제로 자신들이 사회적 편견속에 산다는 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보였다. 이윤을 추구한다는 사실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단지 工人들에 대한 배려와 더 큰 이윤 추구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알력을 느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남녀불평등의 문제도 이제 중국에서는 당연히 없어져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토론의 주제로는 등장하지 않았다. 단 漢代 董仲舒로부터 정착한 三綱 개념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면서도 五倫 개념에 대해서는 모호한 반응을 보였다. 仁義禮智信의 五常은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도 夫婦有別등의 五倫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새롭게 해석하면 되리라고 보기도 한다. 오류에 대

한 깊이있는 토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단지 남녀가 모두 국가 건설을 위해 일해야 하고, 그것이 경제 발전에 유익하다는 소박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었다. 물론 우리가 만난 문화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여자였다는 점에서 여성 인력이 우리보다 잘 활용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복고사상과 禮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유교의 핵심적 사상에 대한 비판이라기 보다는 형식화된 관습에서 유래된 것이라 하겠다. <논어>를 비롯한 유교경전에서 古는 시간적 옛날이기 보다는 聖人들의 道가 실천되던 때라는 규범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 사상을 가장 정교하게 발전시킨 荀子에 있어서 禮는 시공을 초월하는 인간이 걸어야 할 常道로 이해되었다. 일정불변한 道, 곧 聖人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옛 聖人들이 禮를 실천하여 인간성을 완성하였듯이 나 역시 예를 내 삶에 구현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는 옛 사람과 나를 이어주고, 동시에 오늘날 내가 그것을 실천할 때에만 의미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예의 기본정신은 지속되더라도 예의 세부적 형식은 시대에 따라 변천해야 한다. 언어와 의복이 달라지듯이 예의 형식적 표현 역시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우리가 예를 고착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요구한 데 있다. 다시 말해서 유가의 복고사상과 예 사상이 오늘날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그렇게 재해석되어야만 유가 본래의 면목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사실 필자는 오늘날의 중국인들이 유교에 대해 갖는 긍정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자세에서 깊은 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이 오늘날 유교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본 긍정적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1) 신용을 중시한다 - 誠·信·務實의 기업정신에 도움이 된다.
- (2) 가족정신이 강하다 - 기업이 집이요 새로운 가족이라는 데서 용

집력이 강하다 - 돈을 더 벌면 나눈다.

- (3) 대인관계를 중시한다 - 사회 안정과 질서에 도움이 되고 단결분진 등으로 기업표어가 된다.
- (4) 도덕적인 선한 사람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 중국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인내심이 있다.

유교의 信義사상이 기업적 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국영기업이든, 가정기업이든, 합작기업이든 우리가 만난 모든 기업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런 신의 사상에 가족정신이 결합되었을 때, 그것이 혈연적 가족의 경우에는 중국인 특유의 가정기업으로 발전한다. 세 형제가 합작을 해서 설계는 대만에서 하고, 노동제작은 대륙에서 하며, 판매는 홍콩에서 한다는 우리가 石獅市에서 돌아본 완구공장이 좋은 예이다. 그러나 국영기업인들은 혈연적 가족에 매이면 능력별 취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가족적 협조 정신을 가지고 단결해서 일한다는 점에 역점을 두었다. 돈을 더 버는 해에는 그것을 工人들과 나눈다는 石獅市에 있는 어느 봉제공장장의 말을 들으면서 전통중국 사회의 길드조직에서 종업원들에게 이익을 배분하던 예가 생각났다.⁴⁴⁾ 그러나 廈門에 있는 한국합작기업에서는 고용인의 숫자는 비슷했지만 수입이 증가된 해에도 그것을 工人들과 나누지는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곳에 취업한 공인들은 대부분 외지인들로 결혼 이전까지만 일하다 귀향하는 단순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인간적 배려에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는 듯 했다. 그에 비해 石獅市의 봉제공장은 고급여성의상을 만드는 곳으로 기술적 공인들을 보유할 필요가 커서 대인관계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대만합작기업에서는 생일잔치를 함께 하는 등 가족적 분위기 형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고 있었다.

44) 《중국종교사》 窪德忠·西順藏 역음, 조서을 옮김, 한울아카데미 1996, 210쪽.

중국 노동자들의 근면절약이 주자의 節儉 사상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할 길은 없었다. 단지 石獅市 완구공장의 사장은 어려서 《三字經》을 외웠는데,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기억하고 있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三字經》이란 “人之初, 性本善”등 세 글자가 한 귀절을 이루어서 어린이들이 외우기 쉽게 만든 것이다. 南宋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아동들의 계몽교육에 쓰였는데, 明清 때에 필요에 따라 첨가되었다. 民國 초기에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수정되어 《新三字經》이라 개명하고 청소년 교육자료로 활용되었다. 《三字經》은 1128字로 376句로 구성되어 있고, 《新三字經》은 1272字로 424句로 증보수정된 것이다. 2년전에 출판된 새로운 해설서는 등소평 사상에 기초를 둔 주석을 붙여서 시대정신을 이끄는 길잡이가 되고자 한다는 머리말을 붙였다.⁴⁵⁾ 《新三字經》의 내용은 대부분 유교적 내용을 현대화시킨 것이다. “인간의 시작은 갈지 않은 옥덩이와 같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도리를 알지 못한다”고 시작하여 어른을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골육과 가까이 지내며, 이런 마음을 확대하여 나라를 사랑하라고 가르친다.⁴⁶⁾ 4장에서는 사회생활을 조화롭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논어》에 나오는 말씀으로 “세 사람이 함께 가면 그 안에 스승이 있다”든가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등의 황금률이 들어 있다. 또한 주자의 사회관을 요약한 듯이 “公益을 중히 하고 私欲을 끊으라”는 권고도 잊지 않고 있다. 5장은 중국의 5천년 역사를 간단히 설명하는데 모택동과 등소평으로 끝마친다. 마지막 장인 6장은 유구한 전통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孔孟으로부터 시작하여 老莊, 屈原, 李太白등 중국 문화를 높인 위인들이 소개된다. 《新三字經》은 높은 문화를 중국인의 정체성으로 삼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자 하는 염원으로 그친다.⁴⁷⁾ 여기에도 문화적 禮와 경제적 富가 상호보완적

45) 《新三字經講解》, 黃天驥 편, 廣東高等教育出版社, 1995, 1-3쪽.

46) ‘人之初, 如玉璞... 人不學, 不知理’(같은 책, 5쪽); ‘尊長輩... 愛父母... 骨肉親... 推此心, 愛中華’(13쪽).

으로 대비되고 있다. 중국의 역사와 문화 전체를 유교적 시각안에서 조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도 중국 문화는 유교라는 모태를 결코 떠날 수 없음을 절감케 한다.⁴⁸⁾

끝으로 필자에게 하나의 의문으로 남는 문제가 한 가지 있다. 주자의 경제관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義와 利의 긴장을 풀 수 있는 열쇠가 靜坐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국 유학자들의 반응은 애매했기 때문이다. 福建師範大學 교수들과의 좌담회 때 필자는 靜坐가 오늘날 실천되고 있는지 질문했다. 靜坐 전통은 오늘날 氣功으로만 보존되어 있다던가, 옛날에는 정통적 수행방법이었지만 지금은 바빠서 실천할 수가 없다는 등의 대답을 들으면서 주자학의 발생지인 복건성에서도 <存天理去私欲>의 수양이 실천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주자는 半日 독서하고 半日 정좌하라고 할 정도로 정좌를 중시하고 스스로 실천했다. 인간 마음안에 천부적으로 주어진 天理를 未發의 中의 상태로 存養하기 위해서는 매일 어느 정도의 시간을 조용히 앉아 명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실과 접촉하여 감정이나 생각이 발하기 전 상태에서 천리를 닦은 사람만이 已發의 상태에서 私欲이 움직였을 때 이것을 빨리 알아보고 그 기미부터 끊을 수 있다. 居敬이란 未發의 조용한 상태(靜)에서나 已發의 활동(動) 속에 한결같이 공경스러움을 간직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의 수양을 하는 사람만이 利와 義의 긴장속에서 義를 희생하지 않고, 利를 버리지도 않는다. 義로 利를 정화하여 조화를 이루고 많은 이에게 이로움을 베풀 수 있다. 곧, 民을 위해서 義와 利를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47) '文化高, 虎添翼, 求富強, 爭朝夕'(같은 책, 63쪽).

48) 유교를 모태라고 보는 이유는 聖王들로부터의 중국 문화전승이 모두 유교 경전으로 확정되고 유교적 시각에서 편찬되고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詩, 書, 易, 春秋, 禮는 결국 유교화된 중국 고대문화의 집합체였다.

주자의 경제관은 民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義를 앞세운다. 民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天理의 사회적 구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天理를 구현하고자 하는 성실한 노력은 時中, 곧 상황 전체를 파악하여 그 상황 안에서 가장 적합한 정책을 탄력성 있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주자의 경제관이 현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대의 강점은 “時中的 義”를 추구하게 하여 사회의 한 부분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전체를 골고루 이롭게 함으로써 어진 사회로 나가게 하는 윤리적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